

우리들 모두의 가장 크고 넉넉한 광장

개장 10주년 맞는 교보문고의 어제와 오늘

언제부턴가 우리는 약속장소를 광화문으로 정할 때면 으레히 “교보 앞에서”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로 각광을 받게 된 교보문고가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80년대 초 정치·경제적으로도 굵직한 사건들로 장식된 그 시기는 출판문화계에도 오래 기억될 만한 순간이었다.

대한교육보험(주)이 자사의 이미지업과 국민교육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당시에는 무모할 정도로 규모가 큰 서점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오는 6월 1일로 개장 10주년을 맞게 된 교보문고다. 광화문 네거리에 위치한 교보사옥 지하 1층에 들어선 교보문고의 주소는 종로구 1가 1번지. 지리적 위치도 그렇지만 행정구역을 표기할 때도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르는 ‘명당’에 자리잡은 교보문고는 당시의 큰 서점 열개를 합친 ‘덩치’로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도서문화의 고두보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비단 매장의 크기가 아니라도 현대적 시설과 매출액, 문화적 기여도에서도 최상의 자리를 굳힌 교보문고는 개장 10년을 맞는 지금, 일개 ‘책방’이라기보다 국민의 소중한 문화향유의 ‘터’라는 의미망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자본금 10억 들어 1981년 6월 1일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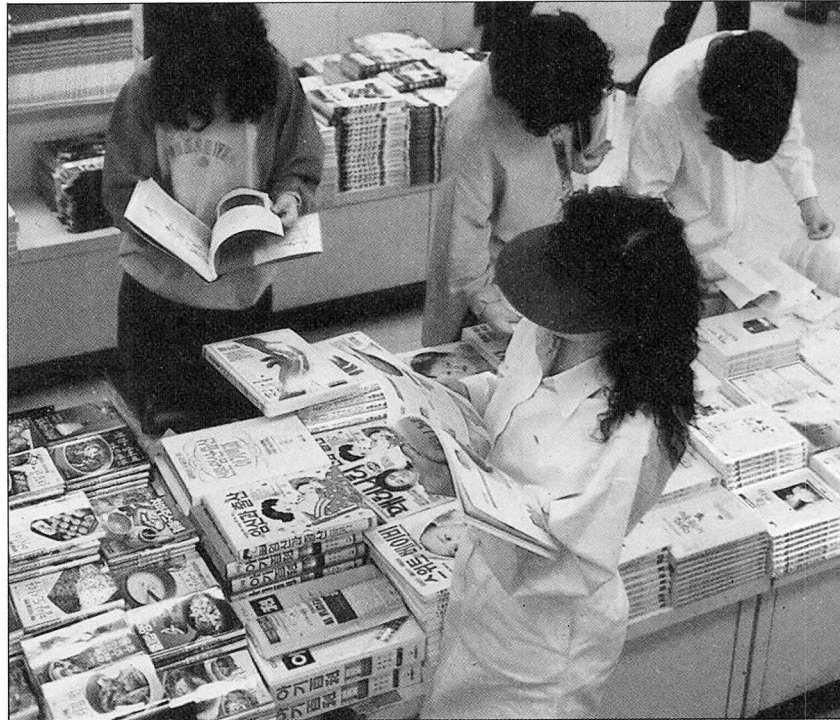
교보문고의 개점이 가져온 문화적 충격은 ‘동양최대 규모의 서점’ ‘서점공간의 혁신’ ‘단층규모론 세계제일’로 뽑아진 당시 신문기사의 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서점에 컴퓨터 시설을 도입한다는 사실과 60만권이라는 장서량, 개가식 서가, 문구센터 등 부대시설을

고루 갖춘 문화공간의 창출이란 점에서 고무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2천여명에 이르던 출판사들은 어렵잡아 2백5십권씩의 도서를 단숨에 소화했고, 결제일이 서너달이나 밀리는 서점의 늦장어음에 ‘갈증’나 하던 이들 출판사들에게 월50만원 미만의 대금은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교보문고의 방침은 여간 반가운 ‘단비’이기에 충분했다. 물론 기존서점들의 반대가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출판유통의 활로가 되리라는 기대 속에서 교보문고는 출범했다.

당초에는 모회사인 교육보험측이 임대를 결정하고 광고까지 했으나 마땅한 책임자가 나타나지 않자, 최초 자본금 10억원을 들여 탄생시킨 교보문고의 초대사장이었던 이도선씨(민자당 국회의원)는 개점 당시를 이렇게 회고한다.

“교육보험의 창립자인 신용호선생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 제의를 받았는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마련을 위해 1년에 2억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선뜻 취임하게 되었죠. 개인적으로도 사치공간이 증가하고, 독서율이 떨어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던 차여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일은 일부 서점인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출판선진국인 일본의 서적상들이 방문해 놀라워 할 때가 무엇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고가의 외국서적을 수입해 전문가나 학자들에게 외상으로 구입하게 했던 일과 창설 1년만에 개최한 ‘세계대학출판부 출판도서전시회’를 잊지 못한다는 이의원은, 서점은 ‘상점’이



아님을 직원들에게 강조했었다고 한다.

꾸준한 성장 속 지점설치 시비도 겪어

이렇게 출발한 교보문고는 자충수일 게 틀림없다는 주위의 지적이 무색할 정도로 줄곧 성장세를 보여, 주변의 중소서점을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우려하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변의 서점 역시 비슷한 사업신장을 함으로써, 그런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교보문고가 잠재독자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반증이 된다.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도출해낸 교보문고가 순탄한 행보만을 계속해온 것은 물론 아니

다. 지난 82년 2개 도시에 건설할 계획인 교보빌딩설계에 서점을 포함시킨 것이 밝혀지면서 표면화된 교보의 지방지점계획은 이에 반발한 서련측과의 끈질긴 줄다리기로 격심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옥재부장(교보문고 종합관리부)은 “비록 지방서점들의 집단휴업 사태와 창립자의 철회방침으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로 인해 지방서점계의 자극을 통한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당시의 교보사태에 대해 한 출판전문가는 “대형서점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현수준의 시장구조에서 소형서점과 대형서점의 공존을 가능케 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지적했

기이와 너의
표 도서출판 **래**

☎ 738-7840 / FAX 737-0872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137의 1

生命의 신비는 깊습니다. 삶과 삶이 만나는 마당은 넓습니다.

그사람, 어느길로 가더냐

• 김일상 지음



무조건적 확신이 범람하고 구원이 방해되는 세상에서 조금쯤은 흔들리고 가끔씩은 허전한 사람들. 물질적인 풍요를 구가하는 세대 속에서 내 바꾸지만 비어 있는 것 같은 억울함으로 오늘을 배꾸어 나가는 이웃들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들려 주는 참평화, 참자유, 참위안의 말씀들. 빈 손과 빈 손 사이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가치관의 주소는 어디인가?

동양 정신과 서양정신의 결혼

• 베드 그리피츠 지음/정청영 옮김

유대, 그리스도교와 힌두, 불교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 간 베네딕트회 수도승의 영적 순례기

서양 전통에 젖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서, 직관적이고 여성적인 동양정신과 이성적이고 남성적인 서양정신이 모순과 대립 없이 만나 따뜻한 화해의 강물을 이룬다. 진정한 지구인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진통과 출산, 그리고 영원한 기쁨의 편린들

내면의 불꽃

• 윌리엄 존슨/정청영 옮김

지구가 한마음이 되어가는 오늘날, 종교의 양대 산맥인 불교와 기독교의 접합점을 찾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佛性과 神性, 空 체험과 神秘 체험이 포장만 다를뿐 내용은 같다고 결론지은 예수회 신부의 종교 탐색. 우리들 내면에 간직된 사랑의 불꽃 안에서는 불교와 기독교가 함께 녹아들 수 있음을 차분한 필치로 전개해 나간다.

잠든 하나님 깨우기

• 요엘 골드스미스/나종근 옮김



하나님은 사다리를 타고 오르고 올라야, 그것도 죽음 이후에나 만날 수 있는 먼 존재인가? 하나님은 바로 이곳 이 자리, 나의 호흡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명상을 통해 깨달은 저자가 인간 내면에 잠들어 있는 하나님을 깨워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평화를 이야기한다. 기독교 전통에 접목된 동양적 명상법의 세계.

었다.
 다소간의 시비 속에서도 막대한 작자가 예상되었던 교보문고는 연평균 30%에 가까운 신장속도로 성장하는가 하면 매장규모도 점진적으로 확장해갔다. 실평수 680명에서 출발, 단계적으로 임대면적을 흡수해 현재는 1천5백여평이라는 세계최대의 매장을 보유하게 된 것. 이것은 영국의 포일즈서점(1천3백평), 일본의 기노쿠니아서점(1천여평)보다 훨씬 넓은 것이다. 서가의 총길이만도 26.76km에 이르고, 국내외도서를 합친 1백5십만권의 도서를 시내 한복판에 전시해 놓은 교보문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4~5만명선에 가깝다. 그래서일까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한 한 문인은 “제일 큰 서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사했다”고 한다.

외형적인 성장만이 교보문고의 전부는 아니었다. ‘세계대학출판부 출판도서전’을 비롯한 ‘프랑스도서전’ (82년) ‘국제어린이도서전’ (83년) ‘한일도서전’ (88년) 등의 도서전과 8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편집디자인과 제작분야에 대한 출판계의 인식을 전환케 한 ‘북디자인상’ 등의 행사는 교보문고의 문화적 기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양서출판과 외서수입, 사보 「교보문고」 「국내종합도서목록」 등을 발행 배포하면서 독자들의 편익을 도모해왔다.

단순한 책방 아닌 총체적 문화공간

“교보문고의 발전적 면모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매장의 점진적 확대로 인한 책 찾기의 곤란함이나, 잘 팔리는 책들인 베스트셀러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도, 전문서적이나 인기가 없는 도서를 고르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장 곳곳에 쌓여진 베스트셀러 무더기는 볼쌍 사납더군요. 웬지 시끄럽고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장초기부터 교보문고를 즐겨 찾는다는 유현석씨(시사저널 출판부기자)의 불만에 대해, 교보문고 정석희과장(홍보부)은 “86년부터 이러한 불편함을 덜기 위해 개·보수작업이 거론돼 왔는데, 조명시설·공기청정시설 등이 한계에 와 있어 조만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최근 임원진 교체와 연초부터 대두돼 왔던 ‘휴·폐업설’로 한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은 교보문고는 신임 김병수사장의 공식적인 해명으로 안정을 되찾고, 개장 1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생활문화공간에 서점이 기여했다는 점에서, 유통상 지극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전문서적·학술서적의 원활한 유통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 등 출판의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교보문고의 위상은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규상씨(눈빛대표)는 단순한 서점의 모습이 아닌 총체적인 문화공간으로 성장한 교보문고의 10년을 자리매김 했다.

서점 공간을 통한 국민교육의 실현이라는 창립취지와 문화를 촉진시키고 문화를 운반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점문화를 일구기 위해 그동안 기울여온 교보문고의 10년 노력이 빛나는 것은, 앞으로도 그 노력이 멈추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담보로 한다.

— 최태원 기자

얼굴

“세계에서 으뜸가는 서점 만들겠다”

교보문고 신임사장 김병수씨

우리나라 서점의 대명사로, 매장규모로는 세계최대임을 자임하는 교보문고의 대표이사인 김병수(66)씨가 지난 4월16일에 있는 인사개편으로 바뀌었다.

전임 정태경 사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장직을 맡은 김병수씨(66)는, 서점인 출신도 전문경영 경험도 없는 언론인이었던 자신이 소임을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공통분모이겠지만, 책을 골라 산다는 행위와 책을 판다는 일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다 좋은 책을 다양하게 구비해 쾌적한 환경에서 독자가 마음껏 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일이 생각같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두려움마저 든다는 김사장은, 더욱이 교보문고의 사회적 이미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장사’에만 생각을 기울일 수 없어 더더욱 힘들다고 아직은 익숙치 않은 업무에 ‘셈’하는 방법부터 배우는 중이라고 겸손해하는 그는, “적어도 ‘문화공간 창출을 통한 국민교육 이바지’라는 창립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자세를 다지고 있다”고 말한다.

취임과 동시에 휴·폐업설에 시달려 곤욕을 치렀다는 김사장은 이와 관련해, “교보를 아끼는 고객을 위한 봉사와 개선된 국민의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개·보수공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그렇지만 폐업 운운은 가당치 않을 뿐더러, 아직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김사장은 며칠전 자리를 함께 한 이영령 문화부장관과의 대담을 이렇게 전했다.

“교보문고는 이제 우리나라 도서문화의 상징적 존재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공사가 불가피하다면 그 기간도 앞당겨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시더군요. 책을 벗하기 위해 모이던 청소년들이 갈 곳을 잃어서야 되겠느냐 얘가지요.”

교보와는 사사편찬에 관여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김사장이 새벽잠마저 설쳐가면서, 제반기능과 시설 등을 첨단화해 규모나 기능 면에서 교보문고를 세계제일의 서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바로 교보문고가 ‘公器’이기에 그렇다.

— 최태원 기자

우리말 분류사전

제1권 이름씨 편
 제2권 풀이말 편
 (부록: 북한에서 쓰이는 우리말)

4 × 6 배판 각권 36,000원

**우리말
 맞춤법·표준어
 사전**
 위은이 남영신

신국판 760면 값 18,000원

김경실 에세이

사랑 열미

이웃과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사랑과 추억이 있어 장미원에서 향기를 손끝에 지녀보듯 작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서점가에
 사랑 열미
 열풍 열풍!!

석양 창 앞에 앉은 어머니가 물레를 돌려 고운 실을 뽑아내듯이 그의 문장은 실로 아름답다.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에 등불이 꺼져 있는 시대에는 아름다운 글 한줄이 새로운 삶의 길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

값 3,500원 — 시인 황금찬 —

도서출판 **한강문화사** 722-7311 723-1188

위당 시조 연구

한 시대를 거울같이
 살고 간 위당의 문학
 세계를 깊이 연구하고
 재조명한
 오동춘 박사의 저서

지금 서점에서
 만나 보십시오
 신국판 236면
 값 5000원

지은이 오동춘

한문학, 사학쪽은 많이 논의되고 그의 평가가 높게 드러났다. 그러나 시조작가로서의 평가는 생소하다. 그가 불행히 6·25때 납북된 탓도 있지만 그의 시조구조가 <한시답고 단조롭다>는 한 마디로 그의 문학적 평가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 작가 서문에서 —